

외면당하는 직장보육시설

재정상태 열악, 교육 투자 못하고 '탁아'에 머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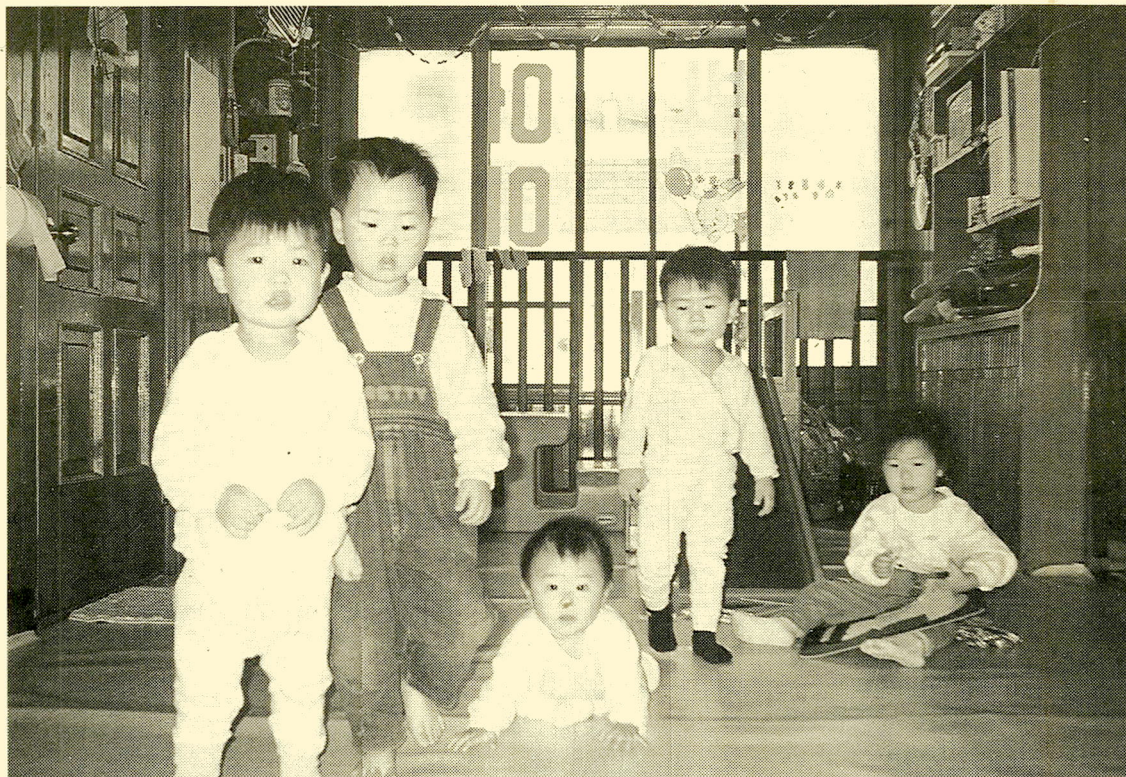
여성근로자에 실질적 혜택 못 줘, 기업·정부 적극적 참여 있어야

보사부는 올해 초 '보육사업 확대'를 위해 약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육에 관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 지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가진 기혼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개선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보육에 관한 관심이 편중돼 있다는 비난을 샀었다.

뿐만 아니라 상시여성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1백83개소 중 18개소 만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연초 보사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이행을 촉구하거나 공동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수당 지급을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업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구색 맞추기식 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여직원 2천3백명에
이용 아동은 60명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대상기업 18개소를 포함해 전국 28개 업소이고 이들 직장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총 7백68명에 불과해 극소수 여성 근로자의 자녀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이들 보육시설들이 영세한 보육시설과



◀ 성남 오리엔트시계의 '동방 어린이집'은 노조 주도로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지만 다른 직장보육시설에 못지않은 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재정난으로 인해 질 높은 보육기능을 못하고 단순히 '탁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조차도 아이들을 맡기기 꺼려하고 있다.

지난 85년 설치된 부산(주)삼양통상의 '유아실'은 만 2세에서 7세까지 취학전 아동 60명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육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녀가 있는 전체 여직원 2천3백여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아동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달에 3만원의 실비가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아이들을 맡기지 않는다.

(주)삼양통상의 총무과 박한규 대리는 "한달에 보통 1백만원에서 1백50십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유치원교사 자격

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두분의 인건비에 최소한의 교육자재, 관리비 등으로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정기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을 위한 투자를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힘이 들더라도 비싼 보육시설을 찾아가거나 친척집에 맡기는 것 같다"고 설명한다.

보육교사
월급 충당하기도 어려워

다른 직장보육시설의 경우도 거의 사정이 비슷하다. 회사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실비의 일부를 따로 받거나 사원 복지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해 명분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9월 회사의 도움 없이

노동조합 주도로 설치돼 눈길을 끌었던 성남 오리엔트 시계의 '동방어린이 집'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91년 노조와 회사측의 단체협약시 보육시설을 설치할 장소와 전체운영비의 80%를 지급 한다는 것에 합의를 했으나 결국 회사에서 장소만 지원하고 사원복지기금(4억5천만원)의 이자 월25만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로 하고 사원들의 모금 1백50만원, 기부물품을 바탕으로 노조가 주축이 돼서 '동방어린이 집'이 문을 열었다.

"처음 4명이 신청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 9명이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들에게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동방어린이집의 보육교

사인 김계인 씨는 보육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노동조합의 김영화 사무장은 회사측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성근로자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전한다. 김 사무장은 "처음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여직원 1백70명을 대상으로 했다가 운영이 안될 것 같아 지금은 전체 여직원 4백여명과 남자직원들에게까지 개방했는데도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 기혼여성들 뿐 아니라 미혼여성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줘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한다.

'동방 어린이집'은 0세에서 8개월 아동 10만원, 8개월에서 1세 아동 8만원, 그 이상의 아동에게 5만원의 실비를 받고 있으나 한달에 30만원인 교사

들의 급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다. 이영화 사무장은 전체 여직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간담회나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직장보육시설 의무, 대상
아동수 기준으로 바뀌어야

여성노동계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이 여성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5백인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의무규정을 남녀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1백50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거나 여성근로자의 수가 아닌 보육대상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설치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백인 이상이면 대부분 대기업 수준인데 실제 기혼여성들이 많이 고용돼 있는 사업장은 중소기업이거나 영세업체에 몰려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안으로는 혜택을 받는 여성들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몇 개의 단위 사업장이 연합해서 직장탁아를 설치하거나 사용자들의 보육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사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부담감이 크다는 이유로 당분간 그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여성노동자와 정부간의 의견차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금희 기자)